

미국에서의 사회다윈주의와 우생학: 도덕주의자들의 실패한 기획*

김호연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I. 들어가며

II. 스펜서

III. 셉너

IV. 데이븐포트

V. 나오며

I.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생물학적 분석과 그에 기초한 설명, 그리고 비전 제시가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한 실마리를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의 사회다윈주의(social Darwinism)¹⁾와 우생학(eugenics)²⁾ 주창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56).” 이 글은 “미국에서의 사회다윈주의와 우생학: 도덕주의자들의 실패한 기획,” 『역사 속의 진화론』 다윈 탄생 20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2009.06.27 서울대)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이다. 김기운 선생님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1) 사회다윈주의라는 용어는 Emile Gautier가 1880년 고전경제학을 “*le Darwinisme social*”로 지칭하면서, 고전경제학적 입장을 고수하는 이들을 비판하면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작 사회다윈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다. 이정희는 사회다윈주의라는 용어가 19세기에는 이를 비판하는 반대자들에 의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다윈주의를 개인주의적 사회다윈주의와 전체주의적 사회다윈주의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앙드레 피쇼 지음, 이정희 옮김, 『우생학, 유전학의 숨겨진 역사』(서울: 아침이슬, 2009), 140쪽-159쪽 참조. 한편 그린(John C. Green)은 호프스태터(R. Hofstadter)의 입장과 유사하게 사회다윈주의를 “개인·부족·민족 그리고 인종 간의 생존경쟁을 사회 진보의 주요한 추동력(engine)이

자들의 사상 속에서 찾아보려는 데 있다. 19세기 후반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은 다양한 세력들에게 수용되어 다양한 이념의 이론적 토대로 기능한 바 있다.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했던 여러 시도들 가운데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사회다윈주의와 우생학이었다. 이는 무엇보다 그것이 심각한 역사적 폐해를 낳았고,³⁾ 과학과 이념 사이의 문제를 가늠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었다.⁴⁾

사회다윈주의와 우생학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구사회를 풍미했던 매우 복잡한 지적·문화적 현상이었고, 이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제시되어 왔다.⁵⁾ 먼저 사회다윈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큰 틀에서 보면, ‘경쟁이냐 협동이냐’라는 구도로 단

라고 보는 신념”이라 정의하면서 그것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적 질서를 옹호하고, 우생학, 인종주의, 제국주의 등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도 사용되었다고 본다. John C. Green, *Science, Ideology, and World View: Essays in the History of Evolutionary Ideas* (Los Angeles: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81), p. 95, 130. 필자는 이런 주장을 기초로 사회다윈주의를 ‘경쟁과 그에 기초한 적자의 생존, 그리고 생존한 적자의 유전이라는 구도 속에서 자연과 사회를 유비한 이데올로기’로 파악한다. 이렇게 보면, 우생학은 사회다윈주의의 또 다른 기획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우생학이란 용어는 그리스어 eugene에서 온 말로 “출생이 좋은(good in birth)”이라는 의미이다. 그리스어로는 εὐγενής이다. 그리스어로 eu는 good, well을 뜻하고, gen은 genesis, creation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우생학은 잘난 태생에 대한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윈의 사촌, 골턴(F. Galton)이 1883년 처음으로 사용했다. F. Galton, *Inquiries into Human Faculty and Its Development* (London: Macmillan, 2001 [1st Electronic Edition; 1st ed. 1883]), p. 17.
- 3)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사회다윈주의와 우생학에 내재된 생물학주의는 히틀러(A. Hitler)의 유대인 학살과 같은 잔혹한 학살 행위를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 이는 최근 큰 위세를 떨치는 듯 보이는 현대 생물학주의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도 작용하고 있다. 물론 어떤 이들은 현대의 생물학주의가 단순히 과거의 그것처럼 생물학적 결정론에 의거하여 정치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는 반론을 편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의 유비관계를 통해 인간 삶의 질이나 행복을 논의하는 방식은 똑같다. 더군다나 인간 삶의 모든 것들을 자연선택된 유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원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모든 생물학적 논의를 보수화된 이념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생물학을 통해 인간의 마음이나 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려는 시도 또한 마뜩치 않아 보인다.
- 4) 이에 대해서는 김호연, “과학과 이념 사이의 우생학,” 『동서철학연구』 48 (2008), 243쪽-267쪽 참조.
- 5) 이 글에서는 사회다윈주의와 우생학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쟁 축만을 언급할 것이다. 양자의 다양한 함의에 대해서는 J. W. Burrow, *Evolution and Society: A Study in Victorian Social Theory* (London: Cambridge U. P., 1966); Gertrude Himmelfarb, *Victorian Minds* (Gloucester: Harper & Row, 1968); Paul Crook, “Social Darwinism: Some Historiographical Reflection,”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and History* vol. 39, no. 1 (1993), pp. 88-94 참조.

순화시킬 수 있다. 경쟁을 강조하면서 사회다윈주의를 분석한 대표적인 사례는 호프스테터(R. Hofstadter)의 연구였다. 그는 사회다윈주의를 두 단계로 나누어 초기의 사회다윈주의는 개체 사이의 경쟁을 강조하면서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정당화했고, 후기 국면에서는 집단 사이의 경쟁을 강조하면서 우생학, 인종주의, 제국주의 주창자들의 것이 되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사회다윈주의는 자연선택이라는 기제를 통해 인간 사회의 진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는 잔인한 생존경쟁을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중산계급, 즉 기득권 유지를 위한 사람들의 것이었다.⁶⁾ 반면 베니스터(Robert C. Bannister)는 다윈주의가 단순히 자유방임론자들만의 전유물도 아니었고, 다윈주의를 경쟁과 선택의 논리를 강요하는 질나쁜 이데올로기로 폄하하는 세력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적대자들을 공격하려는 입장에서 다윈을 끌어들이려 했음을 지적한다. 이들은 그들의 반대파와는 달리 경쟁보다는 협동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개혁적 다윈주의(reform Darwinism)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⁷⁾

다음으로 우생학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적 틀은 ‘유전이나 환경이나’는 구도 속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말한 사회다윈주의 논쟁 축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정치적 입장이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경쟁은 유전과, 협동은 환경과 연동되어 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유전을 우생학의 이론적 전제로 설정하는 해석은 우생학이 본질적으로 골턴(F. Galton)에서 바이스만(A. Weismann)을 거쳐 멘델(G. Mendel)에 이르는 유전학의 발전 경로를 거치면서 인간의 육체적·정신적·도덕적 특질을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그 실천면에서 부적자의 제거에 천착했던 것으로 분석한다. 반대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해석들은 우생학은 유전과 환경의 개념적 모호성이 존재하던 시기에 등장한 것으로 라마르크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며 공중보건이나 교육 등 일련의 개혁적 활동을 전개한 경우도 많다고 본다.⁸⁾

6) 호프스테터의 해석은 사회다윈주의 및 우생학 논의를 정형화된 구도로 이끄는 출발점이 되었다. Richard Hofstadter, *Social Darwinism in American Thought* (New York: George Braziller, 1959 [1st 1944]).

7) 베니스터의 해석은 수정주의적 해석의 대표적인 것이다. Robert C. Bannister, *Social Darwinism Science and Myth in Anglo-American Social Though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79).

8) 김호연,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 (서울: 아침이슬, 2009), 29쪽 -31쪽. 우생학의 주요한 논쟁점인 실천의 다양성, 실천의 구체적 양상, 과학과 이념, 우생학과 새 우생학

이와 같은 대표적인 논쟁 축은 사회다윈주의와 우생학의 사회적 함의와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규정짓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보통 경쟁이나 유전론을 강조했던 그룹은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자연법칙에 의거한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사회진보에 장애가 되는 그런 존재들을 제거하려는 적극적인 실천을 도모했다고 해석된다. 반면 협동이나 환경론에 입장에 선 그룹들은 바람직하지 않는 형질들의 개선과 그 개선을 통한 사회진보의 가능성을 설파했던 개혁주의적 입장에 서 있었던 존재들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분법적 논쟁 축은 사회다윈주의나 우생학의 해석을 단순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다윈주의와 우생학은 개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매우 중층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⁹⁾

이런 논쟁 구도 속에서 케이(Howard L. Kaye)의 분석은 흥미롭다. 케이는 기존의 논쟁 축에서 관심을 갖던 정치적·사회적·윤리적 차원의 논의에서 벗어나 진화, 인간 본성(도덕), 그리고 과학의 연결고리 속에서 사회다윈주의와 우생학을 그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는 다윈주의를 수용하고 이를 사회로 적용하려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단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과학적 진화론을 왜곡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본다. 사회다윈주의자라는 오명을 썼던 섬너조차도 다윈의 진화론 수용과는 별개로 적어도 자연선택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연선택이 잔인한 생존경쟁과 그로 인한 약자의 제거와 강자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만일 이들이 사회적 약자의 생존을 도모하는 정부간섭주의를 비판했다면, 이는 사회적 약자들의 자조나 자립에 방해가 된다는 차원에서였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사회 진화를 상정했던 이들은 도덕적 의무감을 지닌 일종의 모랄리스트였다.¹⁰⁾ 과연 케이가 말하는 도덕적 의무감이란 무엇이고, 그 의무감은 어떤 모습으로 발현되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것이 필자가 주목한 문제였다.

등의 논의에 대해서는 같은 책, 28-35쪽 참조.

- 9) 사회다윈주의의 지적 토대가 갖는 복잡성에 대해서는 김호연, “사회다윈주의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3-8쪽, 우생학의 중층적 성격에 대해서는 김호연·박희주, “우생학의 다층적 접근: 유전, 환경 그리고 이념,” 『환경법연구』 27 (2005), 139-158쪽 참조.

- 10) Howard L. Kaye, *The Social Meaning of Modern Biology: From Social Darwinism to Sociobiology* (New Brunswick, J.J.: Transaction Publishers, 1997) [하워드 L. 케이 지음, 생물학의 역사와 철학 연구모임 옮김, 『현대생물학의 사회적 의미』 (뿌리와 이파리, 2008)].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의 사회다윈주의와 우생학의 주창자들로 거론되어 온 스펜서(H. Spencer), 섬너(W. G. Sumner), 그리고 데이븐포트(C. B. Davenport)의 사상과 그 실천은 자신들의 종교적·사회적 열망을 진화 과학과 결부시켜 위기에 처한 미국 사회의 전통적인 도덕률을 지키고, 새로운 미래상을 그려내려는 시도였으나, 실패한 기획이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좁게는 사회다윈주의와 우생학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넓게는 진화 과학, 즉 생물학이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숙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줄 것이다.

II. 스펜서

19세기말 새로운 사회적·지적 상황의 도래, 즉 산업화와 다윈주의의 성립은 그간 서구 세계가 믿어왔던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종교관을 해체하는 듯 보였다. 이런 상황은 미국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었고, 이는 사회다윈주의나 우생학의 출현 및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의 사회다윈주의와 우생학의 주창자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적·지적 상황을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진화의 법칙을 통해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¹¹⁾ 물론 진화 과학이 이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¹²⁾

19세기말 미국사회를 풍미했던 사회다윈주의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전개된 사회다윈주의는 라마르크주의(Lamarckism)에 사상적 토대를 두었던 스펜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물론 스펜서의 논리는 다윈과 결부됨으로써 더

11) 이런 흐름을 살펴보는 데는 인간 본성의 문제를 다윈주의와 연관하여 다룬 데글러(Carl N. Degler)의 연구가 유용할 것이다. Carl N. Degler, *In Search of Human Nature: The Decline and Revival of Darwinism in American Social Though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영국에서의 사회다윈주의와 우생학에 대한 개념적 논의로는 홀리데이의 연구도 눈여겨볼 만하다. 홀리데이는 사회다윈주의를 다윈의 진화론과는 무관한 스펜서적이고 라마르크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사회다윈주의를 우생학과 동일한 견지에서 파악한다. R. J. Halliday, "Social Darwinism: A Definition," *Victorian Studies* 14 (1971), pp. 389-405.

12) 1890년대 이후 미국의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들 역시 거의 예외 없이 각종 진화론 및 유전학 이론에 기대어 자신의 사상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서는 Mark Pittenger, *American Socialists and Evolutionary Thought, 1870-1920*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3) 참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는 다윈이 스펜서의 최적자생존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다윈과 결부된 스펜서의 논리는 대중들에게 과학적으로 손쉽게 인식될 수 있었다. 맬더스(T. R. Malthus)의 생존경쟁 관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유기체의 변이와 적응의 문제를 거론하며 모든 생물은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고,¹⁴⁾ 그 과정에서 좀 더 많은 후손을 남기기에 적합한 생물들이 살아남는다고 주장했다.¹⁵⁾ 이는 거역할 수 없는 진화의 결과였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윈은 스펜서의 최적자생존이라는 용어를 차용했다. 스펜서는 1852년 최적자생존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¹⁶⁾ 그는 진화에 있어서 적응을 강조하며 생존경쟁과 부적자의 제거를 통해 진화가 달성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회도 마찬가지다. 이는 맬더스의 영향이었지만, 스펜서에게 중요한 문제는 인구 압력에 대한 비관론적 견해가 아니라 진보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인구과잉은 생존경쟁을 야기하며, 생존경쟁에서의 최적자생존은 장기적으로 자연선택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선택(social selection)’, 즉 사회적 진보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스펜서의 논리는 많은 이들이 생존경쟁에서 승리한 적자의 생존을 자연의 섭리이자 사회적 필연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윈도 이를 수용하여 최적자생존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생물학적 진화와 사회 진보는 연관성을 맺게 되었고, 이는 사회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호와는 관계없이 진화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공간임을 분명히 해주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을 빌어 인간 사회를 유기체적 자연의 모습으로 그리려고 시도했다.¹⁸⁾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¹⁹⁾ 스펜서는 이런 흐름을 선도했던 존재였다.²⁰⁾

13) Bannister, *op. cit.*, pp. 3-7.

14) 맬더스와 다윈의 생존경쟁 관념에 대해서는 Peter J. Bowler, “Malthus, Darwin, and The Concept of Struggle,”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37, No.3 (1976), pp. 631-650 참조.

15) Charles Darwi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of Favoured Raas in the Struggle for Life* (New York: Penguin Books, 1968 [1859]), pp. 153-155.

16) Herbert Spencer, “A Theory of Population, Deduced from the General Law of Animal Fertility,” *Westminster Review* 1 (1852), p. 501.

17) 다윈과 스펜서의 지적 혼합에 대해서는 김호연, 앞의 책, 78-87쪽 참조.

18) 이에 대해서는 문상화, “진화론: 19세기 영국의 지배담론의 한 양상,” 『영국연구』 제5호 (2001), 26-41쪽 참조.

19) 자연법칙과 정치나 법률의 관련성을 논의한 버지스의 연구를 보라. John W. Burgess, *Political Science and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vol. 1 & 2 (Boston: Ginn & Co., 1891).

20) Robert L. Carneiro, *The Evolution of Society Selection from Herbert Spencer's Principles of Sociology*

18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창간된 대중 교양 잡지들을 분석해보면, 미국에서의 스펜서의 위상과 영향을 어렵지 않게 가늠해볼 수 있다. 많은 대중 교양 잡지들 가운데 *Popular Science Monthly*는 스펜서의 진화 이론이 대중들에게 전파되는 창구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스펜서가 대중적 인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잡지의 창간호(1872)에 스펜서가 첫 글²¹⁾을 게재한 이래, 스펜서는 초대 편집장이었던 요먼스(E. L. Youmans)의 도움으로 자신의 진화 이론을 지속적으로 이 잡지를 통해 개진할 수 있었다. 스펜서에게 재정적 후원도 아끼지 않았던 요먼스는 스펜서의 진화 이론을 자세하게 요약하고 발췌하여 소개하고, 스펜서의 진화론이 기독교적 교리와 잘 조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²²⁾

사실 스펜서의 진화 이론은 다윈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스펜서도 다윈처럼 맬더스나 라이엘(Sir C. B. Lyell) 등에게서 영향을 받았으나, 그는 기본적으로 라마르크주의자였다. 스펜서가 주장했던 진화론은 이른바 우주 진화론(cosmic evolutionism)이었다. 스펜서가 주장한 진화는 우주의 진행 과정 속에 스며있는 필연적인 과정이고, 그 과정의 배후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원리와 힘이 존재하며, 진화는 필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성격의 것이었다.²³⁾ 진화를 적응의 과정으로 파악한 그는 자연선택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이는 자연선택이 진화의 과정에서 적은 수의 유리한 변이들만을 선택할 것이므로, 진화 전체로 놓고 볼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자연선택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불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을 제거하는 역할뿐이라고도 주장했다.²⁴⁾ 스펜서는 자발적인 협동에 기초한 산업사회가 강제적 협동에 기초한 약탈적 사회보다 더 발전적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타성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최적자생존이 야기할 수 있는 약탈적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주장을 하기도 했다.²⁵⁾ 스펜서가 말하는 최적

(Chicago &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p. x.

21) 1896년 출간된 자신의 『사회학 연구』 첫 장(Our Need of It)을 발표했다. H. Spencer, "The Study of Sociology," *Popular Science Monthly* 1 (May 1872), pp. 1-17.

22) E. L. Youmans, "Herbert Spencer and the Doctrine of Evolution," *Popular Science Monthly* 6 (Nov. 1874), pp. 20-48.

23) J. D. Y. Peel ed. *Herbert Spencer: On Social Evolution* (Chicago: Univ. Chicago Press, 1972), pp. 38-52.

24) H. Spencer, "The Inadequacy of Natural Selection," *Popular Science Monthly* 42 (Apr. 1893), pp. 799-812.

25) H. Spencer, "Predatory and Industry Society," *Popular Science Monthly* 9 (Oct. 1876), p. 732.

자생존이란 근면한 사람이 우월하다는 것이고, 사회적 조건에 잘 조용하는 사람들이 생존한다는 것이었지, 강자에 의해 약자가 대체되는 폭력적인 방법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스펜서는 지속적으로 군사사회와 산업사회를 비교하며 자발적인 협동, 즉 이타성을 강조하고 있다.²⁶⁾ 따라서 스펜서가 말하는 적자란 단순히 이기심 많고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근면하면서도 이타적인 존재였다.

이런 점에서 스펜서의 최적자생존은 “진화과학 용어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자기 계발을 추구하는 청교도 윤리였다. 다윈이나 헉슬리(T. H. Huxley)는 물론 스펜서에 대한 개혁 다윈주의적 비판자들의 인간사회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스펜서 자신의 인간사회 진화는 물질의 진화나 생명의 진화에 관한 이론이라기보다는 도덕적 과정의 진화에 관한 이론”²⁷⁾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존재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악이라 지칭되는 고통을 겪을 것이었다. 반대로 “적응의 결과는 선택 즉 성공적인 자손의 생산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쾌락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스펜서의 정치적 결론이 뒤따른다. 만약 사람들이 각자의 본성과 그에 따르는 행위의 결과인 선과 악을 스스로 경험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적응과 인간 종의 번성은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결과일 것이었다. 심리적인 강화 과정과 도덕적인 라마르크주의는 또한 동정, 도움, 정직함, 이타성, 자기절제 및 기타 적응성을 지닌 행동과 감성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유전된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었다. 따라서 스펜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도덕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 정책으로 자유방임을 옹호했다.”²⁸⁾ 스펜서는 덜 적합한 사람들, 정신박약,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장애인들, 저능아들이 제거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²⁹⁾ 그래서 국가의 간섭으로 그들의 의지나 노력이 약화되는 것을 걱정했고, 이런 생각이 국가 불간섭주의로 표명된 것이었다. 정부가 봉건 시대처럼 이것저것 간섭을 하려한다면, 이는 오

26) H. Spencer, “A Rejoinder to M. De Laveleye,” *Popular Science Monthly* 27 (June 1885), p. 193.

27) 케이, 앞의 책, 57쪽.

28) 같은 책, 57-58쪽.

29) H. Spencer, “Private Relief of the Poor,” *Popular Science Monthly* 43 (July 1893), pp. 315-316;
Idem “The Limit of State Duties,” *Popular Science Monthly* 39 (Oct. 1891), pp. 639-645.

히려 불만족스러운 결과, 즉 악을 창출하기 쉬우므로, 개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만족을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했다.³⁰⁾ 오히려 국가의 역할이란 옳은 인간 본성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³¹⁾

이런 이유로 케이는 스펜서의 진화 이론은 초기부터 후기까지 이른바 과학적인 도덕을 확립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고, 스펜서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도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스펜서의 논의가 유신론처럼 들리게 표현해 내는 그의 능력 덕택이라고 보았다. 이는 스펜서의 이론을 수용한 가장 열광적인 추종자들이 존 피스키(John Fiske)와 같은 지식인들이었던 점에서 알 수 있는데,³²⁾ 이들은 스펜서의 이론을 경제적인 성취를 정당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독교의 윤리와 희망들을 유지하면서 과학과 종교가 서로를 이해하는 한 방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³³⁾ 이런 주장대로라면, 스펜서의 진화 이론과 결부된 미국에서의 사회다윈주의는 이타적인 인간 본성의 달성과 관계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0) H. Spencer, "The Study of Sociology," pt. 10 (Class-Bias), *Popular Science Monthly* 3 (May 1873), p. 46, 57.

31) 이런 스펜서의 생각은 일면 토마스 헉슬리(Thomas H. Huxley)의 논리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헉슬리는 1893년 로마니스 강연에서 인간 사회는 자연의 산물이고, 현대문명은 윤리적 세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말하면서 19세기 말 제국 사이의 경쟁 체제에서 영국 제국의 보전과 유지를 위해서는 제국 내 구성원 사이의 경쟁을 자제하고, 윤리적 삶을 연마해 갈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헉슬리의 입장을 인간 사회의 진화를 도덕적 언어와 결부시키고, 그 안에서 자연선택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타성이 증가해가는 진보를 상정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측면에서는 헉슬리의 사상과 스펜서 입장 사이의 그 간극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헉슬리의 사상에 대해서는 김기윤,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 시대의 초상", 『한국과학사학회』 제28권 제1호 (2006), 55-79쪽; 토머스 헉슬리(Thomas H. Huxley) 지음, 김기윤 옮김, 『진화와 윤리』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참조.

32) 피스키는 대학시절부터 줄곧 스펜서적 진화론을 열렬히 수용하고, 과학과 종교적 신념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John Fiske, *Outlines of Cosmic Philosophy*, vol. 2 (Boston: Houghton Mifflin & Co., 1874); *idem A Century of Science and Other Essays* (Boston: Houghton Mifflin & Co., 1899). 스트롱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보다 더 중요한데, 이는 과거 선조들이 꿈꾸던 기독교적 공동체의 완성을 통해 담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스트롱은 신의 섭리로 전 인류를 앵글로 색슨화시킨다는 이상을 품기도 했는데, 이는 앵글로 색슨만이 기독교 정신과 시민적 자유를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Josiah Strong, *Our Country* (New York: The American Home Missionary Society, 1885), pp. i-v.

33) 케이, 앞의 책, 55쪽,

그러나 스펜서의 진화 이론과 그에 기초한 사회다윈주의는 국가불간섭주의, 개인주의, 자유방임, 그리고 최적자생존의 이미지와 결부하여 자본주의 체제와 제국주의적 경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논리로 기능함으로써 그의 바람과는 다른 역사적 결과를 낳고 말았다.

III. 섬너

섬너는 미국 사회다윈주의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섬너에게서도 스펜서와 유사한 진화에 대한 생각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물론 섬너의 비판자들은 그가 실제 증거가 빈약한 연역적 추론에 기초한 인식론을 갖고 있었고, 존재론적 차원에서 집단이나 사회보다는 개인의 존재론적 우월성을 강조했으며, 가치론의 측면에서는 부에 대한 축적을 도모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을 뿐이라고 비판한다.³⁴⁾ 다른 학자들은 섬너가 다윈과 스펜서의 사상을 수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섬너 사상의 핵심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이에 반대한다. 섬너의 다윈주의적 용어, 특히 스펜서의 최적자생존에 대한 관심은 특정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발현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³⁵⁾

섬너 역시 과학의 권위를 이용하여 확립된 청교도적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하려 했던 인물이었다.³⁶⁾ 섬너는 “19세기 후반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이민의 도래로 복잡하게 전개되었던 사회적 상황과 다윈주의가 미국사회에 끼쳤던 영향으로 인한 정신적·지적 혼란이 뒤엉켜져 나타난 사회적·도덕적 위기를 극복”³⁷⁾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따라서 섬너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남북전쟁 이후 새로이 통합된 미국의 정신적 기반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이를 위해 그가 강조했던 것은 자연선택과 같은 방식의 잔인한 경쟁이 아니라 점진적인 적응의 과정을 통해 달성되는 사회의 안정이었다.

34) Frank X. Ryan, ed. *Darwin's Impact: Social Evolution in America, 1880-1920* Vol. 1 (Bristol: Thoemmes Press, 2001), pp. xi-xii

35) Bannister, *op. cit.*, p. xiv.

36) 케이, 앞의 책, 60쪽.

37) 이형대, “미국 지성사에서 윌리엄 그레햄 섬너의 자연주의 사상과 보수주의,” 『미국사연구』 4 (1996), 135쪽.

섬너는 스펜서의 전도사가 되어 사회학이 정립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는 왕성한 집필력을 보이며 1869-1896년 사이 약 125개에 달하는 학술논문과 시론 등을 *Collier's*, *Harper's Monthly*, *Cosmopolitan*, *London Economist*, *The Independent* 등에 기고한 바 있다. 이런 논문들과 시론 가운데는 보호관세와 같은 현실적이고 민감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슈들이 많았다.³⁸⁾ 섬너의 저작활동은 미국에서 1880년대-1890년대 사이 일기 시작한 교양 잡지 창간 붐과 맞물리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스펜서, 그리고 그와 연결된 섬너의 사상, 곧 최적자생존의 원리는 교양 잡지들을 통해 대중들에게 각인되고, 여기에 걸출한 과학자인 다윈이 결부되면서, 진화, 곧 최적자생존 또는 자연선택을 통한 사회 진보는 하나의 자연법칙으로 손쉽게 인식될 수 있었다.

섬너는 사회의 법칙도 자연의 법칙에 따르며, 따라서 인간도 당연히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다. 이제 인간 사회는 자연과의 유비 속에서 논의되며 법칙의 지배를 받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인간 사회는 섬너에게 스펜서의 원리, 곧 최적자생존을 통해 진보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었다.³⁹⁾ 섬너의 정부 불간섭주의는 그의 생존경쟁 개념에 비추어보면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섬너가 그린 생존경쟁은 다름 아닌 인간이 자연에 대해 행하는 생존경쟁이었다. 진화를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으로 파악한 섬너는 인간 개개인은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 생존수단을 구하려고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적합한 개인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개인은 도태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자연의 법칙이다. 따라서 인간 개개인이 스스로의 적합성을 찾기 위해 사회적 조건이나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정부 간섭은 개인의 부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범죄를 예방하는 소극적 차원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⁰⁾ 이런 점에서 섬너가 말한 국가 불간섭주의는 인간 본성이 합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전제였다.

38) W. E. Leuchtenburg and Bernard Wish, eds., *Social Darwinism: Selected Essays of Graham Sumner*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63); Albert G. Keller and Maurice R. Davie, eds. *Essays of William Graham Sumner*, vol. 2 (New Haven: Yale Univ. Press, 1934).

39) William G. Sumner, *The Challenge of Facts and Other Essays* (New Haven: Yale Univ. Press, 1914), p. 68.

40) *Idem*, *What Social Classes Owe to Each Other* (New York: Harper & Bros., 1883; reprint, Caldwell, Idaho: Caxton Printer, 1974), pp. 88-96, esp. p. 88.

섬너는 자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생존수단 때문에 한 가족 내부에서도 생존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⁴¹⁾ 섬너가 그린 생존경쟁은 인간 사회의 진보가 자연선택이 그리는 이미지처럼 그렇게 피로 물든 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⁴²⁾ 섬너가 그린 생존경쟁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경쟁이 아니었다. 문명의 역사는 진보와 후퇴를 되풀이했고, 낙오자도 함께 살아온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⁴³⁾ 섬너는 자연과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스스로 적합성(fitness)을 달성해 가려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라고 보았다.⁴⁴⁾ 즉 인간은 자연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노력, 즉 근면이나 자기절제를 할 것인데, 이는 개인의 생존에도 필수적인 것이고, 더불어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도덕률에도 합당한 것이었다. 따라서 섬너에게 생존경쟁은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거나 그것을 극복하려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의 인간 본성을 다듬어야만 하는 도덕적 성질의 것이었다.

그렇기에 섬너에게 최적자란 자기절제와 근면을 통해 부를 축적함으로써 사회의 진보에 이바지하는 존재였다. 섬너가 “잊혀진 사람(The Forgotten Man)”이라 묘사한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 “잊혀진 사람은 하루 온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근면한 노동자이며, 근검·절약·신중 그리고 절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채와 세금을 지불하는 깨끗하고 묵직하며 덕있는 가정적인 시민이다. 그는 언제나 내버려 두어도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는 결코 어떠한 사회 문제도 만들지 않으며, 어떠한 규제도 필요치 않았다. [...] 정말로 그 잊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때, 미국의 진정한 가치는 재발견될 것”⁴⁵⁾이었다. 섬너는 이러한 잊혀진 사람의 자질을 미국의 정신적 기반으로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섬너는 진화의 관점에서 이런 존재들로 구성된 도덕적 사회가 구축되면, 도덕적 적합성은 사회적 관습이 될 것이고, 이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될 것이라고 보았다.⁴⁶⁾ 도금시대(the Gilded Age)를 지나면서 미국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산

41) *Ibid.*, pp. 71-87.

42) Ryan, *op. cit.*, p. xii.

43) Sumner, *What Social Classes Owe to Each Other*, pp. 61.

44) *Idem*, “What Makes the Rich Richer and the Poor Poorer,” *Popular Science Monthly* 30 (Jan. 1886-1887), pp. 289-296.

45) 이형대, 앞의 논문, 155쪽.

46) William G. Sumner, *Folkways: A Study of Sociological Importance of Usages, Manners, Customs, Mores*,

업적 경쟁, 노동 착취, 일확천금의 현실화, 독점, 정경 유착 등 악으로 넘쳐나는 정글과도 같은 곳이었고, 이런 상황이 발생시키는 악, 즉 인간의 고통을 진화 과학으로 설명하고, 또 그 법칙에 따라 미국 문명을 치유해 보고자 했던 것이었다.⁴⁷⁾

하지만 어떤 이들은 섬너의 사상에서 잔인한 경쟁의 논리와 최적자생존의 법칙을 읽어냈다.⁴⁸⁾ 이는 섬너의 사상이 자본가의 재산축적을 자연의 법칙이라 정당화하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종의 생존경쟁을 강조했던 섬너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생존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본이라고 보았다. 자본은 인간 노동의 결과를 배가시키고, 진보를 위한 수단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은 국가 발전의 힘이며,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섬너는 과거 생존경쟁에서 패배해 재화의 축적이 중단된 원시인들은 퇴보를 면치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⁴⁹⁾ 따라서 자본을 소유한 국가와 존재들은 필연적으로 생존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이고, 자본이 사회에서 유발되는 자연선택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섬너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거대한 부의 축적은 마치 승자에게 주어지는 합법적인 보상으로 간주될

and Morals (New York: Ginn, 1940 [1906]), pp. 28-30.

- 47) 섬너의 후예로 불리는 기딩스(Franklin Giddings)도 인간 본성의 개선을 통해 사회진보가 가능함을 주창한 바 있다. 기딩스의 이론은 통상 “사회화된 개인주의”(social individualism)라 불리는데, 이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도 개인주의에 입각해있었지만, 그 개인주의는 집단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는 개인의 성공을 종교에 기초한 고통의 감내에서 찾고, 환경에 도전하는 개인의 적응 과정은 윤리의 근간이 될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경쟁과 협동을 동시에 강조하며, 개체의 단일성과 개체들 사이의 연대성이 동시에 필요함을 주장하는 데로 나아갔다. 즉 기딩스는 사회진화에서 어느 한 요소만이 늘 지배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는 집단의 생존능력은 그 집단의 결속력, 그 결속력을 담보하기 위한 동정심, 상호 충성심, 이타성 등 개개인의 도덕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딩스에게 생존경쟁은 단순히 잔인하거나 교활함, 그리고 강자의 논리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Franklin H. Giddings, “The Struggle for Human Existence,” *Studies in the Theory of Human Society* (1922), pp. 3-18. 섬너나 기딩스의 논의는 19세기 말 미국 사회에서 개진된 도덕, 윤리, 그리고 진화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와도 맥을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John Dewey, “Evolution and Ethics,” *Monist* 8 (April 1898), pp. 12-17; Jacob Gould Schurman, “Darwinism and the Foundations of Morals,” *The Ethical Import of Darwinism* (1887), pp. 115-160.

48) Andrew Carnegie, “Wealth,” *North American Review* 148 (June 1889), pp. 653-664.

49) Sidney Fine, *Laissez Faire and the General-Welfare State: A Study of Conflict in American Thought 1865-1901*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6), p. 3.

수 있었다.⁵⁰⁾ 이렇게 되면 부의 축적은 자연의 법칙에 의거한 정당하고 자연스런 결과가 된다.⁵¹⁾ 그렇다면 자본가가 축적한 부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에 대해 행한 자본가의 노력, 즉 근면이나 성실에 기인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반대로 자연에 대한 경쟁과정에서 근면하지 못한 존재는 도태되고 말 것이었다.⁵²⁾ 분명 섬너에게서 우리는 도금시대 이후 미국사회에서 전개된 무자비한 경쟁 질서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IV. 데이븐포트

스펜서나 섬너는 개인의 노력이나 근면, 또 자비심이나 이타성 같은 것들이 사회적 해악을 일소하고 문명화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지만,⁵³⁾ 바이스만과 멘델로 이어지며 유전학의 성립을 가져왔던 일련의 흐름은 스펜서나 섬너와는 다른 내용과 방식의 자연법칙이 지배하는 상황을 연출해냈다. 20세기 전반 서구 세계를 풍미했던 우생학의 주창자들의 생각처럼 만일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심지어 도덕적 특질마저 개인의 자유의지나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유전에 의해 고정된 것이라면, 이는 환경적 개선이나 윤리적 활동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일 것이다.⁵⁴⁾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이다. 제거하는 것.

50) William G. Sumner, "The Concentration of Wealth: Its Economic Justification," *The Independent* (1902), Reprinted in Albert Galloway Keller ed., *The Challenge of Facts and Other Essay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14), pp. 81-90, esp. p. 90.

51) Sumner, "On the Reasons Why Man Is Not Altogether a Brute," *What Social Classes Owe to Each Other*, pp. 51-61.

52) Sumner, *Folkways* pp. 16-17.

53) 이들의 열망은 일면 다윈의 자연선택에 대한 한계 설정이나 인간의 문화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맥을 같이한 측면이 있었다. 다윈은 생존경쟁이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기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적어도 인간 본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연선택 기제가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과거에 생존경쟁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심지어 지금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귀한 인간 본성에 관해서는 생존경쟁보다 더 중요한 작용이 있다. 자연선택의 작용으로 사회적 본능이 일어났고 사회적 본능이 도덕감의 발달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덕적 자질은 자연선택보다는 습성의 효과, 추리력, 교육, 종교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훨씬 더 진보했다." 찰스 다윈 지음, 김관선 옮김, 『인간의 유래』 2 (서울: 한길사, 2006), 571쪽.

따라서 우생론자들, 특히 네거티브(negative)⁵⁵⁾ 우생론자들은 이들을 거세하거나 도태시킴으로써 사회의 도덕적 적합성을 이루고, 이를 통해 사회 개혁이나 진보를 이루려고 시도했다.⁵⁶⁾ 그들이 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형질들이란 기본적으로 도덕적 적합성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는 정신박약이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정신박약은 유전되는 것이므로, 그 논리적 귀결은 정신박약으로 판명된,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형질을 가졌다고 인식된 사람들의 생식을 제한하거나 아예 제거하는 것뿐이었다. 이들은 사회 진보에 장애가 되는 도덕적 부적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골턴의 우생학을 수용했다.⁵⁷⁾ 이런 점에서 데이브포트의 시도는 단순한 생물학적 적합성의 달성이 아닌 도덕적 적합성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고, 이는 라마르크주의적인 낙관론에서 벗어나 유전 원리를 활용하여 사회 개혁과 문명화를 달성하려는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인간 사회의 진보와 문명화의 달성은 유전 원리에 의해 설명되고, 그 안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었다.

다윈의 논리대로라면 적합성을 갖고 있는 적자는 생존하여 다산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인데, 오히려 부적합한 존재들의 출산율이 더 높은 상황은 도덕적 적합성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였다. 따라서 이들은 자유방임적인 선택의 결과를 그저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간섭을 통해서라도 인위적으로 적합한 존재들을 선택하고, 부적합한 존재들을 제거해야만 문명화와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데이브포트였다.⁵⁸⁾ 청교도적인 가부

54) C. B. Davenport, *Heredity in Relation to Eugenics* (New York: Henry Holt, 1911), pp. 252-254.

55) 국내 학계에서 통상 positive/negative eugenics는 적극적/소극적 우생학, 긍정적/부정적 우생학, 그리고 양성적/음성적 우생학 등으로 번역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용어보다는 별도의 번역된 용어 없이 우수한 형질을 더욱 개선하려는 우생학은 포지티브 우생학(positive eugenics)으로, 우수하지 못한 형질을 제거하려는 우생학은 네거티브 우생학(negative eugenics)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호연, “우생학의 형성과 전개(1860-1945)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9-10쪽.

56) 당시 유전학자들은 유전 메커니즘에 관심을 가졌던 반면, 우생학자들은 주로 유전과 도덕의 관계에 몰두했었다.

57) 골턴의 우생학에 대해서는 김호연, 앞의 책, 88-112쪽.

58) 데이브포트의 활동과 이력에 대해서는 Charles E. Rosenberg, “Charles B. Davenport and the Irony of American Eugenics,” *No Other Gods: On Science and American Social Though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6), pp. 89-97; Garland E. Allen, “The Eugenics

장적 윤리가 강한 가정에서 성장한 데이븐포트는 어려서부터 금욕주의적인 생활에 익숙했는데, 그는 청교도적 윤리가 경건한 자세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이용하여 인간 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함으로써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 믿었다. 더불어 데이븐포트는 정신박약자나 질병자들을 위해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것에도 적대감을 보였다. 그래서 청교도적 윤리의 회복과 과세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결합하여 이것이 생물학적 언어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⁵⁹⁾ 우생학이 단순한 도덕적 차원의 문제해결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문제와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⁶⁰⁾

데이븐포트는 유전학에 근거를 두고 변이와 자연선택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멘델주의적 유전 이론을 인간에 적용했다.⁶¹⁾ 그는 멘델주의를 새로운 과학의 방법론으로 소개하면서 유전 지식은 지금까지 반사회적 집단, 이민자, 인구, 효율성, 건강과 활력(health and vigor) 등 인간 사회의 특정한 문제들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고, 그 새로운 지식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유용한 잠재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적합한 배우자를 고를 수 있는 분명한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인간 형질의 유전 법칙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간은 그 능력이나 책임성 측면에서도 유전적으로 독특한 존재라고 주장했다.⁶²⁾ 그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형질을 얻기 위해서는 생식을 통제할 필요”⁶³⁾가 있다며 알코올 중독, 빈곤, 그리고 범죄성향 같은 인간의 도덕적·사회적

Record Office, Cold Spring Harbor, 1910-1940: An Essay in Institutional History,” *Obitis* 2 (1986), pp. 225-264.

59) Daniel J. Kevles, *In the name of Eugenics: Genetics and the Uses of Human Hered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p. 51

60) 데이븐포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전에도 이미 미국에서 우생학적 주장들은 개진되고 있었다. 바이스만과 골턴의 주장을 기초로 프레스톤(George Preston)은 1886년 결혼과 같은 인위선택을 통해 인간 개선을 도모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벨(A. G. Bell) 역시 이에 동의했으며, 브루어(W. Brewer)는 1893년 ‘인간의 과학적 양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밀러(S. M. Miller)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결혼금지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기도 했다. Donald K. Pickens, *Eugenics and the Progressive* (Nashville, Tennessee: Vanderbilt University, 1968), pp. 44-45.

61) Charles B. Davenport, “Report of Committee on Eugenics,” *The American Breeders Magazine* I (Second Quarter, 1911), pp. 126-129; 데이븐포트에 대한 꼼꼼한 분석은 정세권, “대번포트(Charles Benedict Davenport)의 우생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6)을 참조.

62) Davenport, *Heredity in Relation to Eugenics*, pp. iii-iv.

63) C. B. Davenport and H. H. Laughlin, *How to Make a Eugenic Family Study*, *Bulletin* No. 13

특질을 유전 원리로 설명하려 했다. 그는 인간의 특질을 크게 신체적 특질, 정신적 특질, 도덕적 특질, 의학적 질환 등으로 구분했는데, 정신박약, 간질, 정신이상, 빈곤, 마약복용, 범죄성향 등을 도덕적 특질로 분류하고, 이는 자각의식의 결여, 무책임성, 무능력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가계 분석을 통해 이것이 유전의 결과임을 증명하려 했다.⁶⁴⁾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인종이나 국민 같은 집단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불량한 형질들을 소유한 일부 국가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어 인종적 혼합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의 정체성에 심대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⁶⁵⁾ 데이븐포트는 사회적 범죄, 빈곤, 정신박약, 매춘, 폭력적 본능 등과 같은 특질들은 결합 유전자에 의해 재생산된다고 규정하고, 그 효율적인 대책은 결합 유전자의 유전을 막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형질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생학적 조치가 필수적인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적 욕망을 잠재우고 재생산될 수 없도록 거세(castration)하거나 생식세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정관절제(vasectomy)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신박약자들의 결혼을 막거나 불임화 수술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⁶⁶⁾ 이러한 데이븐포트의 주장은 과학과 실천의 문제가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이제 인간의 본성이나 도덕적 차원의 문제는 생의학적 차원의 문제로 전환되어 분석되고, 그 해결책 역시 생의학적 차원에서 개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데이븐포트의 인식은 정치적·사회적 차원의 차별적 조치와 그로 인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로부터의 격리 또는 배제라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었다.

실제로 데이븐포트의 주장은 골턴의 우생학보다 훨씬 더 과격하다. 이른바 네

(New York: ERO, 1915), p. 4.

64) 고더드(H. H. Goddard)의 연구나 정신박약의 문제를 연관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 Davenport, *Heredity in Relation to Eugenics*, 3장의 18절-23절, pp. 65-91.

65) 데이븐포트는 유럽에서 정초된 인종이론을 미국에 소개하고, 미국의 인종담론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서는 “The Effect of Race Intermingling,”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65 (1917), pp. 364-368, and “The Skin Colors of the Races of Mankind,” *Natural History* 26 (1926), pp. 44-49 등을 보라. 미국 사회의 인종적 혼합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는 Michael Banton, *Racial Consciousness* (New York: Longman, 1988); Leslie C. Dunn, “Some Results of Race Mixture in Hawaii,” *Eugenics, Genetics and the Family* 2 (1923), pp. 109-124; Madison Grant, *The Passing of the Great Rac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6) 참조.

66) Davenport, *Heredity in Relation to Eugenics*, pp. 255-259.

거티브 우생학의 특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⁶⁷⁾ 골턴은 자연선택이 작동하면 불리한 유전적 특질을 갖는 개체는 어느 정도 쇠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골턴은 포지티브(positive) 우생학을 강조했던 측면이 있다. 그가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은 형질의 유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결혼을 통해 유전되는 형질은 설령 약간의 변이는 일으킬지 모르나, 격세유전으로 인해 평균치로 수렴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반면 멘델의 유전법칙에 천착했던 데이븐포트는 부적합한 형질의 유전에 관심이 많았다. 왜냐하면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 유전에 기인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형질은 자연선택에 의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법칙에 의해 세대를 거쳐 유전될 것이다. 따라서 데이븐포트가 부적합한 형질의 유전을 막고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란 앞서 말한 거세나 정관절제처럼 부적합한 개체의 생식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데이븐포트의 우생학적 사고는 혁신주의 운동의 목표와도 잘 부합한 측면이 있었다. 혁신주의 운동의 주체는 다양했지만, 적어도 많은 이들이 정신이나 도덕의 개혁에 공감했다. 혁신주의 운동을 벌였던 많은 이들은 당시의 사회문제들이 정신의 부패, 도덕의 부재, 종교의 상실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다.⁶⁸⁾ 더불어 19세기 말부터 일기 시작한 반이민주주의의 성장도 데이븐포트의 우생학적 사고가 안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인종적 질의 보존을 당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시대적 이데올로기는 우생학이나 유전학 같은 과학이론으로 뒷받침되어 법적 장치로까지 발전해갔다. 이민제한법, 결혼금지법, 그리고 불임법 등 일련의 우생학적 입법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고, 우생학은 그런 차별적 입법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결국 데이븐포트를 위시한 많은 우생론자들은 도덕적 타락을 막고, 인종적 질을 보존함으로써 문명화의 이상을 달성하겠노라고 장담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과학의 이름으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제거하는 명분을 제공해 주었을 뿐이었다.⁶⁹⁾

67) 데이븐포트의 과학적인 차원의 네거티브 우생학 논의에 대해서는 정세권, 앞의 논문, 50-54쪽.

68) 미국의 혁신주의의 시대에 대한 이해는 박진빈, 『백색제국건설사』 (엘피, 2006).

69) 이에 대해서는 김호연, “미국 우생학 운동의 형성과 사회적 영향, 1900-1940”, 『미국사연구』 16 (2002), 133-157쪽.

V. 나오며

이 글에서는 미국의 사회다윈주의와 우생학의 주창자들로 거론되는 스펜서, 섬너, 그리고 데이븐포트의 종교적·사회적 열망이 진화과학과 연동되어 사회 속에서 발현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케이의 시각을 좇아보면 스펜서에서 데이븐포트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사회다윈주의와 우생학 주창자들은 단순히 자본주의적 질서를 정당화했던 이들이었다기보다는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청교도 정신과 복음주의 등 종교적 차원의 도덕 개혁에 대한 열망을 진화과학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이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사회다윈주의나 우생학을 자유방임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인종주의 등과 같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원의 논의와 단선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은 협소한 해석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다. 19세기 말 미국인들이 지녔던 과학에 대한 신뢰와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과학주의(scientism)는 이들의 열망을 과학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종교가 충족시켜 줄 것만 같았으나 이들의 도덕 개혁에 대한 열망은 백인 우월주의, 엘리트 의식, 사회개혁 의식, 그리고 제국 사이의 갈등에 따른 국가적 효율 담론 등과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있던 문제였다. 더구나 사회다윈주의나 우생학과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사회상은 상호 연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두 이념은 진화론의 영역에서 도출된 것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당대의 역사상이 진화론을 활용하여 만들어낸 이념이기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사회다윈주의나 우생학자들의 열망, 즉 도덕적 적합성의 획득과 그에 기초한 문명화의 달성과 유지라는 그들의 시도가 그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결과적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고착화하는 논거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생래적인 인간의 특성과 관련한 사실적 정보만으로 사회의 새로운 규범이나 질서를 도출해 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었는지, 또 사회적 범죄나 빈곤, 무지와 같은 문제들이 인간 본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화과학이 인간 삶과 인간 사회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이며, 왜 우리가 여기에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물학적으로 환원하여 읽어내고, 그에 기초해 어떤 대답을 얻어내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 것일까. 만일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이지만 하다면 이

런 질문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을 것이다.

최근 인간 존재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인간의 건강이나 보건, 도덕적 적합성의 달성을 운위하는 흐름(인문치료)도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흐름들이 위와 같은 질문들에 얼마나 온전한 답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만일 도덕적 부적합성과 관련하여 누군가가 창피함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생물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인문학의 고전들에 천착해야 할 것일까? 도대체 인간의 삶과 그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인간 사회의 바람직한(?) 진보를 이루기 위한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진화 과학을 기초로 가장 인간적인 사회를 그려내고 싶었던 사회다윈주의와 우생학 주창자들의 시도는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가장 비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 지울 수 없는 역사의 흔적으로 남은 이들의 실패한 기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ABSTRACT〉

Social Darwinism and Eugenics in the United States:
The Failed Plan of the Moralists

KIM Ho Yeon

Humanites Institut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starts with critical analysis about the role the biology, especially the evolution and genetics played in the history and society. So this article tries to answer how reasonable it really is to analyze the human and society biologically as the advocates of Social Darwinism and eugenics of the U.S. did during the end of 19th century and the beginning of 20th century. In particular, this article is to look into the ideology and practice of Herbert Spencer, William G. Sumner and Charles B. Davenport, whose names were raised as the prime advocates of Social Darwinism and eugenics in the U.S. They attempted to defend traditional morality of the U.S. which was supposed to be faced with crisis, and tried to draw a new image of the future by combining their religious and social desire with evolutionary science in vain.

Spencer, Sumner and Davenport believed that human nature as well as morality and the evil and pain of society were the object of biological analysis and the answer to the social problems could be provided by science such as rule of evolution and heredity. However, their religious and social desire ended up in justification of capitalistic and imperial competition and excluding the minority and socially weak from the society.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possible to draw new norm and order of society with the information related to physiological characteristic of a human, and whether it is possible to interpret biologically the problems of human pain such as social crime, poverty and ignorance.

We witness a flux of efforts to interpret ourselves in terms of evolutionary processes, including who we are, why we are here, and how we should live. The appearance of the

ideology and practice of the advocates of social Darwinism and eugenics of the U.S. in the end of 19th and the beginning of 20th centuries will offer a poignant caveat for those upsurge of biologizing tendency on human life and society.

Keyword: Social Darwinism, Eugenics, Moral, Evolution, Heredity, H. Spencer, W. G. Sumner, C. B. Davenport, Humanities Therapy